

<http://dx.doi.org/10.7236/IIBC.2015.15.3.181>

IIBC 2015-3-27

##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투자유치를 위한 온라인 클러스터링 플랫폼 연구

### How to inflow the Fund for Initial Start-Up Companies using the On-Line Clustering Platform

유순덕\*, 최광돈\*\*

Soonduck Yoo\*, Kwangdon Choi\*\*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창업기업에게 민간자금이 유입되게 하는 방안 연구이다. 정부지원 자금 신청 시 수집된 기업정보의 활용방안 및 기업에게 민간자금이 유입할 수 있도록 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인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정보공유의 장인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경제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인 창업지원정책은 정부의 지원 자금 규모의 한계를 때문에 적극적인 민간의 자금 유입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가 보유한 기업정보와 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자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간자금이 우수한 창업기업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 등 관련연구 및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연구방향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이외의 다양한 지원 방안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As a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companies to support, this research is to find how to inflow the fund which is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This is to propose a shared platform for Information for connecting producers and consumers, corporate investors to help fund inflows to private companies and utilization of the enterprise information collected by government.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as one of economy activation have a limit in the size of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therefore support continued growth through aggressive inflow of private funds is needed. It is significant to provide the environment that private funds could spill into the environment to provide for excellent start-up companies.

**Key Words** : Startups, Funding, Government Funding, Producers and Consumers, Venture, Venture Capital

## I. 서 론

### 1. 개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유럽연합은 ‘벤

처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등 10대 강령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즉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여 기술과 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입 및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애플, 페이스북, 유

\*정회원, 한세대학교 경영학부 e 비즈니스

\*\*정회원, 한세대학교 경영학부 e 비즈니스(교신저자)

접수일자 : 2015년 3월 18일, 수정완료 : 2015년 5월 5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6월 10일

Received: 18 March, 2015 / Revised: 5 May, 2015 /

Accepted: 12 June, 2015

\*\*Corresponding Author: kdchoi@hansei.ac.k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sei University, Korea

튜브 등 많은 사례들은 창업이 국가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기술발달에 따라 3D 프린터, 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에 창업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시장에 제시하는 빅데이터는 창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sup>[1]</sup>. 또한 전자상거래 기반의 공유경제를 이용하고 이에 제공되는 창업 지원자금등을 이용하여 창업에 진입하고 있다<sup>[2][3]</sup>. 또한 전자금융기반의 전자결제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장에 제시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등장으로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있다<sup>[4][5]</sup>.

2000년 초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도 국내 창업기업 수 및 특허신청 건수, 창업 펀드 수 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창업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뿐만 아니라 민간자금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창업가 및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민간 자금유입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 창업환경을 살펴보고 창업지원 자금의 한계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기반의 클러스터링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정부의 창업기술 자금 지원 사업에 지원한 기업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생태계에서 생산자인 예비창업가, 창업기업 및 벤처 기업들이 소비자인 엔젤, 벤처 캐피탈, 액셀러레이터들이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클러스터링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제공하는 민간자금이 생산자에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창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민간 자금이 기업에게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 2. 선행연구

선행 연구자들이 국내 창업지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기환(2000)의 연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캐피탈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원 시기도 가능하다면 창업 초창기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그리고 지분투자의 형태가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sup>[6]</sup>.

노현섭(2009)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구조 개선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중소기업 협동화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정책자금지원의 재무성과를 평가하였다<sup>[7]</sup>. 이 분석 결과기반으로 유동성비율이 중소·벤처창업자금,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지원기업에서, 수익성비율이 중소기업 구조 개선자금 지원기업에서, 그리고 성장성비율이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조준희(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자금조달 형태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정부자금지원과 금융기관지원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원은 자금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영지도까지 포함되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했다<sup>[8]</sup>. 따라서 창업 및 벤처 기업에게 자금조달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sup>[9],[10]</sup>.

자금조달 기준으로 기업의 발전단계를 검토하면, 창업단계는 초기 수요자금이 필요하고 성장단계에서는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성숙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성숙 기업은 필요시 사업을 전환, 인수합병 등을 고민하는 단계의 기업이다(Table 2 참고).

표 1. 기업 자금  
Table 1. Funding for firms

Stage of firms	Start-up firms	Growth firms	Mature firms
Stage of finance)	Early-stage finance	Later-stage finance	Late-stage finance
Contents of fi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Early Seed money requirement</li> <li>o Small funds for idea development, research and developm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Second-stage Financing</li> <li>o Primary funding for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i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Turn-around financing</li> <li>o Funding for reorganiz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Start-up Financing</li> <li>o Funded funding for product development and initial market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Third-stage financing</li> <li>o Funding for full-scale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ies as deman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Leveraged buy-out: LBO</li> <li>o Funds for buying shar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First-stage Financing</li> <li>o Funds for the initial production for commercializ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Bridge Funding needs</li> <li>o Corporate funds of steps ahead of the Liste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M&amp;A Funding needs</li> <li>o Funding for the merger and privatization</li> </ul>

기업이 자금을 조달 시 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의 이용 용도가 다르다. 따라서 기업에게 적절한 자금은 기업성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 다음은 국내 창업현황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굳이 어렵고 생산자인 기업의 경우 적절한 투자자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다음은 국내 창업지원의 자금지원 한계요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II. 국내 창업현황

### 1. 창업환경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창업지원정책과 IT붐으로 인해 창업열풍이 일었던 2000년 전후보다 더 많은 창업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창업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2011년에 6만 5천여 개의 창업기업이 탄생하였다. 기술창업도 증가하면서 2012년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가 28,135개로 급증하였고 매출액 1천억 원 이상의 우량 벤처기업의 수는 2004년 65개에서 2012년 400 여 개로 약 6배 증가하였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5월에는 엑셀러레이터 4곳을 선정해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을 1대 1 매칭 투자 형식으로 지원하여 창업활성화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의 신규 건립이나 확장 운영,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13년에는 약 380억 원을 투입했다<sup>[11,12,13]</sup>.

국내 벤처·창업 정책은 비교적 빠른 기간에 벤처 관련 산업 및 생태계의 태동·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정부의 직접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민간의 투자욕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엔젤 투자의 국내 감소를 들 수 있다. 2011년 기준 미국은 엔젤투자(225억\$)규모가 벤처캐피탈 투자(291억\$)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국내 엔젤투자규모는 전체 벤처투자(11.5억\$) 대비 2%에 불과하다<sup>[14,15]</sup>. 따라서 창업 초기(통상 3년 이내)에는 엔젤투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나, 국내 엔젤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sup>[16]</sup>.

국내의 경우 창업관련 지원은 정부 지원 자금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이는 창업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하고, 창업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민간창업자금유입이 미흡하여 국내는 창업·초기 특성에 맞는 투자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소비자인 벤처 투자자의 경우 우수한 기업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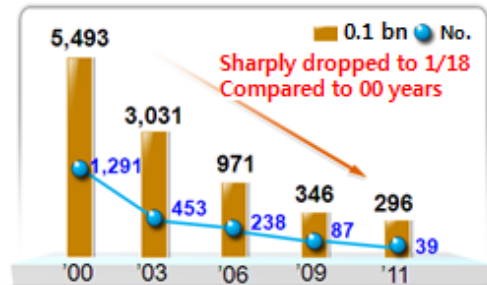


그림 1. 국내외 투자 규모  
 Fig. 1. Domestic angel investment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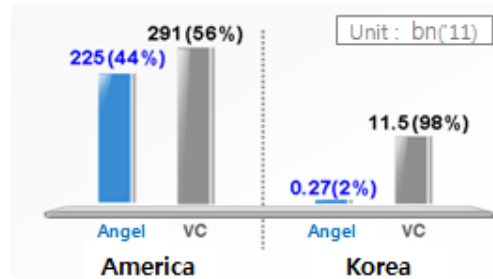


그림 2. 엔젤과 벤처 투자 규모 비교 (2011년)  
 Fig. 2. Angel·VC investment scale comparison (2011)

### 2. 창업 자금지원의 한계점

국내에는 민간의 자생적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의 기반인 예비 창업가와 창업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환경에 있다. 이를 위해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에게 적절한 자금지원은 창업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 창업에 지원되는 자금지원환경의 한계요인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정부지원예산 규모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예산 규모의 한계로 지원받는 기업은 제한적이다.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는 250개이나 지원한 기업 수는 12,500개로 약 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현황을 보면 2014년 일반 창업지원(최초지원)에 신청자 987명이 접수하여 227명이 선발되

었으며, 경쟁률은 4.3 : 1이다. 또한 2014년 글로벌벤처지원(후속지원) 신청은 583명이 접수하여 80명이 선발되었으며, 경쟁률은 7.3 : 1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통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예비 창업가와 창업자를 지원하는 민간자금유입이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 지원은 예산규모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민간자금유입도 매우 미흡하다. 미국은 1980년 12개에 불과했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수가 2012년 1,250개로 성장하여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 주도인 엔젤 및 벤처 투자자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엑셀러레이터들은 창업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자금유입을 위해 벤처캐피탈과의 적극적인 연결을 유도하였다. 또한 대기업 등이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업기업의 회수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민간주도형태의 소비자인 투자자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원의 경우에는 직접투자 보다는 융자 형태의 지원으로 창업기업에게 실패 시 부담을 주는 형태이다. 따라서 초기 창업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유입이 선진국 대비 국내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셋째,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에서 배제된 창업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및 기업성장의 어려움을 겪는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규모의 한계성으로 정부지원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창업기업은 관련 기술을 홍보하여 기술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하여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정부지원자금의 경우 특정 기업 또는 특정 기술에 지원하는 경우로서 각 기관별 관리로 중복지원 사업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양현봉(2013)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 내 또는 부처 유사 중복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 모니터링 관리하여 특정 기업에 중복지원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 사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중복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sup>[17]</sup>. 다음은 상기에서 제시한 한계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 III. 창업관련 자금지원 개선사항

#### 1. 국내 창업관련 자금지원 개선사항

창업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환경은 창업지원의 한계요인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창업지원의 개선방안을 3가지 요인으로 정리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창업관련 자금지원확대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유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창업관련 지원 자금을 증가 시키고 있어서 창업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자금지원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효율적인 자금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및 기타 부분으로 2013년에는 13,968억 원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화 부분으로는 예비 기술 창업자 육성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기술창업자 육성에 지원을 하였다. 창업교육에 114.5억 원, 창업사업화 지원에 1,288억 원과 창업융자에 12,100억 원을 제공했다. 지원에는 융자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창업사업화 지원에 투자를 하고 있다. 창업단계 지원의 경우 민간주도보다는 정부 주도적이며 융자 중심의 자금지원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환경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창업기업을 위해서는 융자보다는 직접 투자 중심으로 비중이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에 자금유입 확대를 위해 엔젤,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육성과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투자시장의 경우는 2010년도 엔젤투자 금액이 210억 달러이고 반면에 한국은 엔젤투자 시장이 2000년 5,000억원에서 2010년 300억원대로 축소되어 1조 4,000억 원 벤처 투자시장의 2%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자인 3F(Family, Friend, Foolish)를 엔젤투자자로 전환시키려는 노력과 전문 엔젤투자자 및 벤처 투자자를 육성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그것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sup>[18]</sup>.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 할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

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자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및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엔젤, 벤처 캐피탈들이 우수한 기업과 쉽게 교류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온라인 기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이 필요하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공유 공간 마련으로 서로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플랫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홍보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생산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 플랫폼에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업정보를 기업의 동의하에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보유한 정보공개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다음은 상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중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이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필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부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거나 외부기관 또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 자금은 규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민간자본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탈락한 창업 기업에게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원하는 경우에 제안서 등 기업 기본정보를 공개하는 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고 소비자인 엔젤, VC(Venture Capital),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등이 자금 등을 지원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보공유 장소가 필요하다. 벤처기업 및 성장기업의 경우 정부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추가 사업 확장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서 유입되도록 지원해야 한다<sup>[19,20]</sup>. 또한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수집된 많은 기업정보 및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안서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한다. 기존에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뿐만 아니라 탈락된 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등 방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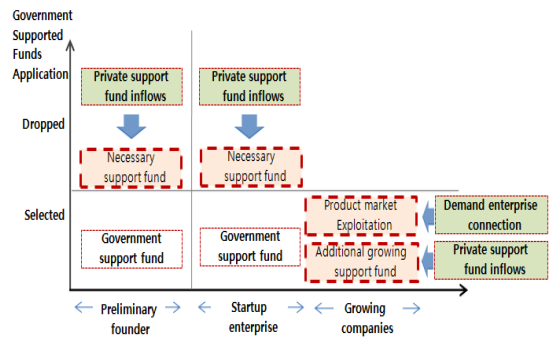


그림 3. 민간 자금 유입 필요성  
 Fig. 3. Private capital inflows need

창업생태계의 중요 구성요소인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이 부족하여 창업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생산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인 투자자로 부터 투자를 받고 싶지만 투자자를 알지 못해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소비자의 경우에도 생산자에게 투자를 하고 싶지만 우수한 생산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상황이다<sup>[21,22,23]</sup>. 창업에 관련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창업 넷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창업생태계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정보를 직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 플랫폼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기업이 동일한 과제로 다른 정부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관련 기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 역할이 가능하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애플의 앱 스토어 등이 있으며 이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플랫폼의 기본도 생산자인 기업과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인 창업벤처 투자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동일하다. B2B 거래 형태로 구축되며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한 기업의 가치를 거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On-Line 클러스터링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 사

업을 통해 자생적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IV.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클러스터링 플랫폼 제안

##### 1.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유 플랫폼인 온라인 클러스터링 플랫폼 제안 배경

실리콘밸리 뱅크스 켄 윌콕스(Ken Wilcox)는 창업기업 육성은 정부가 직접 결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가 할 일이란, 합리적인 세계 시스템이나 견고한 법률 체계 등을 갖추어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창업의 특성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은행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협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24,25]. 따라서 이런 환경 구축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기업정보 및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안서 등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벤처기업과 소비자인 엔젤, VC(Venture Capital),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BI(Business Incubator) 및 Accelerator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교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온라인 클러스터링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공한다. 첫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에 민간 자금이 유입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정부지원 사업 후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셋째, 소비자인 엔젤, VC,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BI 및 Accelerator와의 교류 기회 확대로 창업자 증가를 유도한다. 넷째, 자금지원이 필요한 폐업 위기의 창업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한다.

##### 2. 온라인 클러스터링 플랫폼 구성

온라인 클러스터링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정보를 기업의 동의하에 제공한다. 또한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내용 및 보유 기술 등 각종 정보를 기업의 동의하에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투자기업인 벤

처도 이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통해 기업정보 및 기업 투자 요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들은 투자 기업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투자기업은 우수한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 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가치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업기업은 시니어 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저비용으로 인력을 수급하고 시니어들은 재취업의 기회를 확보한다. 다음은 플랫폼의 구성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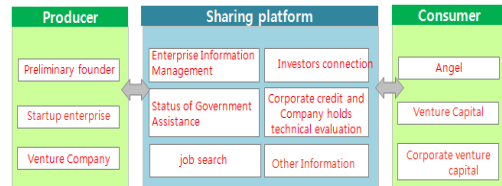


그림 4.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 플랫폼  
Fig. 4. Producer and consumer connection platform

##### 3. 온라인 클러스터링 플랫폼 주요기능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업정보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교류하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 정보를 관리하고 등록 및 저장과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보유한다. 둘째, 정부 지원 현황관리이다. 각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현황 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기능이다. 인력의 구인과 구직 연결 기능이다. 각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연결해주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저비용으로 시니어 경력자를 구할 수 있는 환경제공이다. 넷째, 투자 정보를 연결해주는 기능이다. 소비자인 투자자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생산자인 기업의 신용과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섯째, 공유 플랫폼 운영에 따른 각종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질문과 답변, 최신 동향 뉴스 등이 있다.

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인 투자자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보관하고 있던 기업 정보들의 기업의 허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여 기업이 원하



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운영 플랫폼은 다음의 과정을 통한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했지만 탈락한 기업 중에서 원하는 기업의 경우 정보공개를 통해 민간자본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지원한다. 그리고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플랫폼에 제공된 정보를 제 3자가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플랫폼에서 기업이 투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또는 벤처캐피탈 기업이 공개적으로 투자기업을 모집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각 지원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업정보를 가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하며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해당기술에 대한 평가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마련된 공간을 각 관련 기업 및 기업의 담당자들이 서로 Email 등으로 연결되어 원하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통해서 생성된 정보 및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의 장 역할을 한다. 또한 글로벌 등에서 제공되는 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구역할을 수행한다.

#### 4. 기대효과

생산자 및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인 온라인 클러스터링 플랫폼을 구축 시 제공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지원이 어려운 기업에 민간자금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에게도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정부지원을 통해 완성한 제품의 판로를 홍보를 통해 개척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원하는 투자기업을 선별한 후 그들로부터 효과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홍보를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인 벤처투자자들은 우수한 기업과 연결시켜 주는 장구를 확보한다. 즉 투자받기를 원하는 기업과 투자기업의 자생적 연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섯째, 정보의 통합을 통해 발생하는 시너지를 이용하여 민간 기반의 자생적 창업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 측면에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부처에서 진행한 사업에 중복지원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정부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둘째, 기업의 기술 제안서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데이터 및 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정부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DB 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할 다양한 지표들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의 지원현황 및 분류, 그리고 기업의 발전단계를 추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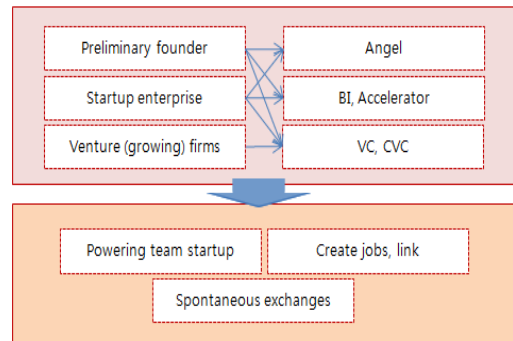


그림 5. 활성화 유도를 위한 생산자 공유 플랫폼의 기대효과  
 Fig. 5. Expected effects on production sharing platform used to activate

## V. 결 론

경제 활성화 방법 중의 하나인 창업지원정책은 정부의 지원규모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민간의 자금 유입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지원이 필요하다. 창업 및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자금 유입은 기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 발전의 기회확보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발판이 된다.

본 연구는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 공유 플랫폼인 온라인 클러스터링 플랫폼을 통한 예비 창업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에게 민간자금 유입방안 연구이다. 창업기업 정보는 정부가 지원 사업 수행 시 보유한 기업정보를 기반으로 창업기업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인 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자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간자금이 우수한 창업기업에게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 등 관련연구 및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연구방향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이외의 다양한 지원 방안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는 온라인 클러스터링 플랫폼의 운영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연구를 통해 제언된 플랫폼이 시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References

- [1] S. D Yoo · K. D Choi · S. Y Shin, Characterizing Business Strategy in a New Ecosystem of Big Data,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2.
- [2] S. D Yoo · K. D Choi,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the Safety Transaction Service in Korea,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 [3] S.D Yoo · K.D Choi · S. J Shin, A study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system in domestic industrie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1.
- [4] S. D Yoo, Current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of electronic payment services,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2014.
- [5] S. D Yoo · M. S Lee, S. Y Shin, Future Forecast Methodology, NIPA, 2014.
- [6] G. H Lee · C. Gang · K. S Kim · S. C Jol · H. S Gang, The Impact of Venture Capital Assistance on the Performance of Software Venture Businesses,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pp.29-61, 2000.
- [7] S. R Hyun · S. R Choi, A Study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MBA Policy Funding in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9, No. 3, pp.1-20, Korean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2009.
- [8] J. H Jo · C. J Kim, A Study on Performance Factors on the Small Business, pp.127-144, 2010.
- [9] J. M Yoon,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venture capital,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2014.
- [10] S. D Jang, Venture start-ups and middle market recovery enabled, Management, 2013.
- [11] Y. S Gang · D. H Cholk, Korea creative economy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atus and challenges: entrepreneurship indicators compared to the cross-country cent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3.
- [12] M. H Lee, Technology start-ups and creative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13.
- [13] Y. R Gang, ICT venture capital ecosystem trends, 2012.
- [14] Improving regulatory measures for the "start-up venture, activate", Joint Interagency, 2014.
- [15] J. S Kim · D. H Hong,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process of corporate venture capital, ETRI, 2013
- [16] Y. G Go, J. W Kim, Equity-type Crowd funding : How to create new investment and the economy people realize Imagine,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3
- [17] H. B Yang, Driving status and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Affairs, 2013.
- [18] B. R Kyun · J. S Kim,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crowd funding and legislative activity, ETRI, 2013.
- [19] Y. M Chi, Relationship with the entrepreneur's strategic orientation and performance in start-ups, Chung-Ang University, 2010.
- [20] Y. G Choe, Mediating effect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capital characteristics and lead-time of the IPO in the technology-based venture company founder, 2011.
- [21] S. Y An, An Exploratory Study of imprinting effects and long-term survival of the company's founding principles,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0
- [22] Y. M Kim, Venture start-ups and Crowdfunding, Sungkyungkwan University



- [23] H. Y Jang, Partnership Strategies and Challenges for SMEs, 2007.  
[24] Y. C Lim, Partnership for SME case studies, 2006  
[25] D. H Kim, Study on Venture Business Growth,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5

## 저자 소개

### 유 순 덕(정회원)



- 1991년 2월 : 국민대학교 수학과(학사)
- 1994년 2월 : 연세대학원 수학과 (이학석사)
- 1995년 12월 : 영국뉴카슬 대학 응용수학 (석사)
- 2010년 3월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교 IT융합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조교수
- <주관심분야 : 전자금융, 창업 및 벤처, 빅데이터, 정부정책, 개인정보 및 보안>

### 최 광 돈(정회원)



- 1987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 2001년 2월 :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MIS전공 (경영학박사)
- 2002년 3월~ 현재 : 한세대학교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과 교수

<주관심분야 : 모바일비즈니스모델 소셜커머스 클라우드컴퓨팅 성과평가 ERP, 빅데이터>